

미 증시, 수익률 곡선 전반 하락에 상승 마감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금리 ↓, 증시 ↑

•미 증시는 국채수익률 곡선 전반의 하방 압력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며 상승 마감. 이 날은 연말 증시의 Key-driver가 될 만한 주요 일정과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음. 부진한 미국의 ISM 제조업PMI와 재무부의 국채 발행 세부계획은 장기물 중심의 국채 수익률 하방 압력을 키웠으나, 예상보다 견조한 고용지표 결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폭 축소하기도. 그러나 FOMC와 파월 의장 기자회견을 소화하며 달러와 국채수익률 낙폭이 더욱 확대되자 장중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 (다우 +0.67%, 나스닥 +1.64%, S&P500 +1.05%, 러셀2000 +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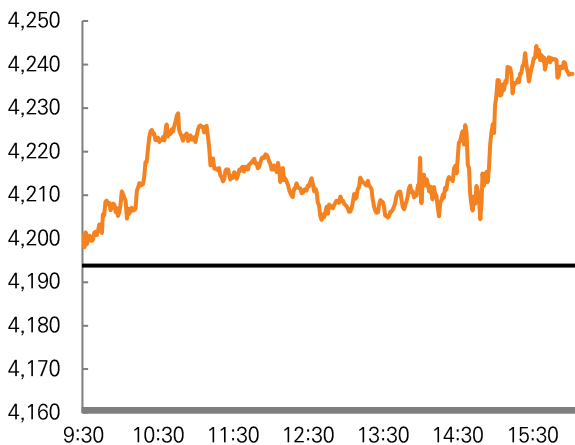
특징 종목: AMD 강세

•S&P 500의 주요 섹터 중 IT(+2.08%), 커뮤니케이션 서비스(+1.84%), 경기소비재(+1.43%) 등이 상승을 견인한 반면 에너지(-0.33%), 필수소비재(-0.06%)는 하락 기록. 아마존(+2.94%), 마이크로소프트(+2.35%), 엔비디아(+3.79%), 메타(+3.51%) 등 매그니피센트 7(Seven) 주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AMD(+9.69%)는 3분기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한 실적 발표했지만, 4분기 매출 전망을 기대를 하회. 이에 전일 장 마감 후, 시간 외에서 상승폭을 축소. 그러나 리사 수(Lisa Su)는 내년 데이터센터용 GPU제품 매출이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에 강세. 이에 칩 메이커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2.33%나 상승. 제너락(+14.35%)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 후 급등. 넷플릭스(+2.06%)는 광고 요금제 출시 1년 만에 전 세계 고객이 1,500만명을 달성했다고 밝혀.

한국 증시 전망: 외국인 Re턴

•MSCI 한국 지수 ETF는 2.37%, MSCI 신흥 지수 ETF는 0.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46.6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2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29% 상승. KOSPI는 0.7~1.2%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미 증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이어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는 조심스러워. 지난 6월 중순 13.3조원을 기록했던 외국인의 연초이후 순매수 규모는 전일 4.7조원으로 약 65% 감소.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9%, 17% 정도나 하락. 결국 중요한 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다시 이어지느냐의 여부. 전일 10월 수출 데이터가 우호적으로 나온 건 맞지만 추세적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간밤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상승을 주도했지만 실적 발표를 한 여러 기업들의 향후 전망과 제조업PMI 부진 등은 부담이 될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01.56	+1.03	상해종합	3,023.08	+0.14
KOSDAQ	739.23	+0.43	홍콩항생	17,101.78	-0.06
DOW	33,274.58	+0.67	인도센섹스	63,591.33	-0.44
NASDAQ	13,061.47	+1.64	유로스톡스 50	4,091.71	+0.75
S&P 500	4,237.86	+1.05	영국	7,342.43	+0.28
캐나다	19,079.00	+1.09	독일	14,923.27	+0.76
일본	31,601.65	+2.41	프랑스	6,932.63	+0.6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① 금리 ② 경제

미 증시는 국채수익률 곡선 전반의 하방 압력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며 상승 마감. 이 날은 연말 증시의 Key-driver가 될 만한 주요 일정과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음. 부진한 미국의 ISM 제조업 PMI와 재무부의 국채 발행 세부계획은 장기물 중심의 국채 수익률 하방 압력을 키웠으나, 예상보다 견조한 고용지표 결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폭 축소하기도. 그러나 FOMC와 파월 의장 기자회견을 소화하며 달러와 국채수익률 낙폭이 더욱 확대되자 장중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

FOMC 그리고 파월

이틀 간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현재와 같은 5.25~5.50%로 동결하기로 결정. 이는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로 시장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긴축정책의 완전한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가. 다만, 현 시점은 2022년의 금리 인상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과잉긴축과 과소긴축 간의 균형이 필요한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해. 또한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

금일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강력하게 반응한 부분은 파월 의장이 “우리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매우 멀리 왔고 사이클의 끝에 가까워졌습니다.”라고 답하자 달러의 약세 폭은 더욱 확대되고, 국채수익률 하락폭은 더욱 커져.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금리인하’가 아니라 제한적인 정책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것인가와 ‘인상을 더해야 하는가’라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 긴축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

Eco 리뷰: 엇갈린 미국 제조업PMI, 여전히 강한 고용시장 그리고 국채발행

미국 모기지은행가협회(MBA)에서 발표한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대비 2.1% 감소하며 3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감소로 인해 모기지 신청 지수는 1995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이후 ADP에서 발표한 10월 민간고용 건수는 11.3만건으로 전월 8.9만건 보다는 개선됐지만, 시장 컨센서스 15만건은 하회. 반면 9월 구인건수는 955.3만건으로 전월 수정치 949.7만건과 시장 컨센서스 925만건을 모두 상회. 실직자 수는 636만명을 기록하며 2022년 1월 이후 가장 많아. 이를 고려한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1.50개로 팬데믹 이전 1.20개 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22년 3월 기록한 2.01개에서 지속 둔화하는 모습 보여.

미국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엇갈린 결과가 나타났는데, ISM에서 발표한 10월 제조업PMI는 46.7로 전월 49.0과 시장 컨센서스 49.0을 모두 크게 하회. 세부적으로는 신규주문(49.2→45.5), 생산(52.5→50.4), 고용(51.2→46.8) 등 주요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타나. 업종별로는 경기에 민감한 건설, 화학 등을 중심으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 반면,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10월 미국 제조업PMI는 9월 49.8에서 소폭 개선된 50.0 기록.

시장은 또한 재무부의 국채 발행 세부계획에 집중하였는데, 재무부는 장기물 보다는 5년 이하의 단기물 중심의 자금 조달을 더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혀. 이는 최근 장기물에서 나타난 수급 공백 우려를 ‘일부’ 완화시키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주 만에 4.8%를 하회하게 만들어. 그러나 전체 공급 물량은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한적 긴축 정책과 함께 당분간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 높아. 미 장단기금리차(10Y-2Y)는 전일대비 3.6bp 하락한 -19.5bp 기록.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역시 ‘AI’…AMD +9.7%

S&P 500의 주요 섹터 중 IT(+2.08%), 커뮤니케이션 서비스(+1.84%), 경기소비재(+1.43%) 등이 상승을 견인한 반면 에너지(-0.33%), 필수소비재(-0.06%)는 하락 기록. 아마존(+2.94%), 마이크로소프트(+2.35%), 엔비디아(+3.79%), 메타(+3.51%) 등 매그니피센트 7(Seven) 주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AMD(+9.69%)는 3분기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한 실적 발표했지만, 4분기 매출 전망을 기대를 하회. 이에 전일 장 마감 후, 시간 외에서 상승폭을 축소. 그러나 리사 수(Lisa Su)는 내년 데이터센터용 GPU제품 매출이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에 강세. 이에 칩 메이커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2.33%나 상승. 제너락(+14.35%)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 후 급등. 넷플릭스(+2.06%)는 광고 요금제 출시 1년 만에 전 세계 고객이 1,500만명을 달성했다고 밝혀.

반면, 에스티로더(-18.90%), 페이콤소프트웨어(-38.49%), 매치그룹(-15.35%) 및 트림블(-13.09%)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 전망을 내놓으며 급락. 듀폰(-8.18%) 역시 3분기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자 큰 폭 하락하였고, CVS헬스(-0.41%)는 3분기 실적이 견조했음에도 의료 혜택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했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 엠차이나(-15.22%)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하회. 또한 9월 말과 10월에 소비자 수요가 둔화됐다고 밝히며 약세.

상품 및
FX시장 동향

美 국채수익률 전반 하락

美 국채수익률은 ① 재무부의 국채 발행 세부계획 ② 미국 주요경제지표 ③ FOMC 회의 등 주요 이벤트를 소화하며 수익률 곡선 전반의 하방 압력 높아져. 우선 재무부는 장기물 보다는 5년 이하의 단기물 중심의 자금 조달을 더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혀. 이는 최근 장기물에서 나타난 수급 공백 우려를 ‘일부’ 완화시키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주 만에 4.8%를 하회하게 만들어. 또한 이날 발표된 10월 ISM제조업PMI와 ADP민간고용, 9월 JOLTs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혼재되긴 했지만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한 점도 수익률 하락에 기여. 마지막으로 FOMC 이후, 파월 의장이 ‘긴축 사이클의 끝에 근접’했다고 언급한 점이 결정적이었음. 이전까지 3~5bp 정도 하락했던 2년물 국채수익률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소화하며 10bp 넘게 추가 하락하였음. 10년물과 2년물 간 장단기금리차는 전일대비 5bp 하락한 -20.8bp로 역전폭이 소폭 확대. 달러인덱스는 장중 107선을 돌파하기도 하였지만, 장중 내내 낙폭을 키우며 106.6선에 마감.

한국
주식시장 전망

결국 ‘외국인’ 리턴이 중요

MSCI 한국 지수 ETF는 2.37%, MSCI 신흥 지수 ETF는 0.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46.6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2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29% 상승. KOSPI는 0.7~1.2%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미 증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이어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는 조심스러워. 지난 6월 중순 13.3조원을 기록했던 외국인의 연초이후 순매수 규모는 전일 4.7조원으로 약 65% 감소.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9%, 17% 정도나 하락. 결국 중요한 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다시 이어지느냐의 여부. 전일 10월 수출 데이터가 우호적으로 나온 건 맞지만 추세적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간밤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상승을 주도했지만 실적 발표를 한 여러 기업들의 향후 전망과 제조업PMI 부진 등은 부담이 될 전망.



반도체 ETF 강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19	대형 가치주 ETF (IVE)	+0.87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65
소매업체 ETF (XLY)	+1.24	소형 가치주 ETF (IWN)	+0.71
온라인소매 ETF (EBIZ)	-0.35	대형 성장주 ETF (VUG)	+1.54
미국 인프라 ETF (PAVE)	+1.25	중형 성장주 ETF (IWP)	+0.24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0.3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1.80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89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01	미국 국채 ETF (IEF)	+1.15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01	하이일드 ETF (JNK)	+0.93
바이오섹터 ETF (IBB)	+1.35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1.45	물가연동채 ETF (TIP)	+0.87
반도체 ETF (SMH)	+2.49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43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IT	2,963.95	+2.08	+2.20	+2.01
커뮤니케이션	221.76	+1.84	+1.54	-0.20
경기소비재	1,224.35	+1.43	+3.56	-3.14
유틸리티	306.19	+1.10	+1.67	+2.34
부동산	208.61	+0.51	+3.40	-2.44
금융	540.21	+0.47	+1.16	-2.16
산업재	834.83	+0.33	+0.99	-2.65
헬스케어	1,453.86	+0.19	-1.34	-3.15
소재	479.10	+0.10	+2.21	-3.12
필수소비재	716.98	-0.06	-0.14	-1.43
에너지	649.85	-0.33	-2.89	-6.39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0.44	-0.23	-5.34	Dollar Index	106.662	0.00	+0.13
브렌트유	84.63	-0.09	-4.69	EUR/USD	1.0569	-0.06	+0.03
천연가스	3.49	-1.96	+16.45	USD/JPY	150.95	-0.48	+0.48
금	1,987.50	-0.32	-0.35	GBP/USD	1.2151	-0.02	+0.32
은	22.79	+0.14	-0.10	USD/CHF	0.9078	-0.29	+1.23
알루미늄	2,217.00	-1.53	-0.09	AUD/USD	0.6393	+0.88	+1.33
전기동	8,109.50	-0.01	+0.96	USD/CAD	1.3857	-0.13	+0.43
아연	2,489.99	+2.49	+0.40	USD/RUB	92.6000	-0.85	-0.86
옥수수	475.00	-0.68	-0.94	USD/BRL	4.9605	-1.54	-0.70
밀	561.75	+0.94	-1.23	USD/CNH	7.3356	-0.08	+0.08
대두	1,315.00	+0.50	+0.65	USD/KRW	1,357.30	+0.50	+0.56
커피	159.80	-4.48	-1.54	USD/KRW NDF1M	1,346.60	-0.30	-0.3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738	-19.24	-21.66	스페인	3.838	-4.50	-16.40
한국	4.285	-5.00	-0.20	포르투갈	3.488	-3.70	-14.00
일본	0.961	+1.40	+10.20	그리스	4.164	-1.40	-11.70
독일	2.764	-4.20	-12.50	이탈리아	4.727	+0.10	-18.8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